

사순 제 1 주일

기도서 P. 247 A해

- 1독 (창 세 2,7-9; 3,1-7절)
- 2독 (로 마 5, 12-19절)
- 복음 (마 태 4, 5-11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훈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 론 □



하느님께 단 10분만이라도...

유 종 환 신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눈코 뜰새 없이 일해야지 조용히 앉아 인생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랍시고 할 일 없이 쓰다니며 막연히 회회타락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인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자기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 일을 정리하여, 나쁜 일은 과감히 끊거나 고치고 좋은 일은 성실하게 밀고 나가며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딘가 비어있는 것만 같고, 맥 없이 축 늘어져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흐느적거리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며, 항상 새로운 맛을 풍겨줍니다. 살다보면 화창한 날 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도 맞이하게 됩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아무리 허술한 집일지라도 걱정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그렇게 허술한 곳에서는 무너질까 봐 불안하여 평안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커다란 유혹들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아 아주 통쾌하게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과 기도와 사랑으로 닦으신 품위는 어떠한 유혹도 손상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도 그칠 줄 모르는 사랑과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40주야의 단식기도를 거울삼아, 지난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사순절, 회개의 시기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성찰을 계속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기도와 성찰의 생활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생명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루 1,440분 중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을 노래합시다.

(진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산골 이야기

덕산(德山)공소. -장수군 장수면 덕산리 범연부락. 장수 면소재지에서 눈덮인 재를 넘어다니니 1시간 45분이 걸렸다. 빈손으로도 걸기가 힘이 드는데, 장날이라서, 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이고 고개를 넘는 아낙네도 있다. 그런가하면 지게에 밀가루 푸대며 비닐 장판까지 한 짐을 지고 넘는 종자도 있다.

20여호나 되던 공소촌이 이제는 15호만 남았다. 화전정리로 6세대가 그 산골을 떠나고 보니 공소 강당이 헐겨진다고 말하는 공소회장의 눈빛이 멀다. 3월부터 12월까지 담배농사에만 매어 살다보면 한 해가 간단다. 논이라고는 거의 없으니 월 4부의 밭을 얻어 곡식을 사 먹고 담배판 돈으로 밭갈이에 허리가 휘단다. 담배 수매 자금도 제때에 나오는 일이 드물어 보통으로 한 달 정도는 생으로 이자를 묻다고 울짱이다.

연탄값이 얼마가 오르던 걱정이 없는 복원(?) 마을. 그러나 그 흔하다는 쌀막걸리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얼룩들이 소주 한 병을 7백원에(장수에서는 5백40원) 사먹어야 하는 마을. 라면도 한 봉지에 70원을 켜야 하는 마을. 여기도 내 형제가 삶을 이어가는 마을이다.

국민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되었다는 요한은 중학교에 가는게 소원이라. 아이들 몇몇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일 큰 소망이 전깃불이 들어오고 버스가 다니는 것이란다. 소위 문화적인 오락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다. 그래도 함께 놀아줄 친구만 있다면 이 산골에서의 생활도 걱정이 없단다. 얼마나 티없는 말인가?

등잔심지 묻구며 시오리 산길을 터벅거리며 넘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고도성장의 혜택이 언제나 미칠 것인가? 하느님, 이들도 국민소득의 성장이라는 말을 알아듣게 하소서.

숲 정 이 산책



늦지 않도록!



사 제 양 성 후 원 사 업

1977년도 사순절 성금 모금 내역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 구	본 당	신자수	현금액	1인평균	순 위
제 1 지구	고 창	886	100,000	113	8
	김 계	2,735	171,063	63	22
	부 안	1,763	60,300	34	34
	수 류	1,667	55,874	34	34
	산태인	2,240	77,004	34	34
	정 읍	2,566	181,361	71	19
제 2 지구	대 야	790	99,910	126	4
	둔울동	2,500	131,371	53	28
	용 안	1,119	115,000	103	12
	월명동	2,226	248,987	112	9
	팔 마	1,125	100,100	89	16
	합 열 산	2,317	78,972	34	34
제 3 지구	화 산	1,228	101,935	83	17
	고 산	2,533	150,093	59	25
	삼 례	1,769	187,915	106	11
	여 산	1,556	193,875	125	5
	주현동	1,415	142,050	100	13
	창인동	2,642	257,866	98	14
제 4 지구	황 동	851	104,766	123	6
	노송동	2,440	280,480	115	7
	덕 진	2,172	129,650	60	24
	북 자	1,306	188,947	145	3
	서학동	1,794	119,067	65	20
	숲정이	661	42,077	64	21
제 5 지구	전 동	3,846	210,600	55	27
	중 앙	3,450	157,339	46	29
	금 산	1,311	80,375	61	23
	남 원	1,221	111,120	91	15
	무 주	869	70,000	81	18
	상 관	1,065	60,560	57	26
기 타	순 창	632	117,237	185	2
	임 실	885	94,678	107	10
	장 계	2,450	71,010	29	35
	진 안	2,923	115,580	40	30
총 계	60,959	4,454,922	73		

사순절에는 모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느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내시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일이 그리스찬인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 대사제로서 십자가상에 자신을 봉헌하신 그 일을 계승하기 위한 사제의 성소는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원사업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매주일 성당에 나가고, 정해진 관공성사를 보고, 포켓트의 사정을 감안해가며 헌금하는 일이 그리스찬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인가? 신실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의 일은 끝나는 것인가?

작년 사순절부터 우리 교구에서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해 사순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백45만여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신학생 양성을 위한 1년 경비의 반에 불과합니다. 작년 사순절의 성금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교구내 전체 신자가 1인 평균 73원을 봉헌한 꼴입니다. 더 세밀하게 따져보면 신자 한 사람이 매일 2원씩을 봉헌한 꼴입니다. 국민소득이 「얼마」 라는 현실검에서 볼 때, 73원이 돈입니까? 2원이 돈입니까?

통계를 보면 시골에 있는 신자들이 도시의 신자들보다는 더 큰 성의를 보였습니다. 소위 넉넉하다는 신자들을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살펴봅시다. 동양을 바라는 분이 얼마를 줘야 갑니까? 텔레비전 시청료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쌀막걸리 한 되에 얼마입니까? 연기로 사라지는 담배는 한 갑에 얼마입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찾으셨을 때, 당신은 어떠한 정성을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의 교우들은 적어도 1인당 매일 10원씩, 여유가 있으면 1인당 매일 50원씩, 은혜를 받아 더 여유가 있는 교우들은 1인당 매일 100원 이상을 돼지 저금통에 봉헌하자고 말씀드리면 죄가 될까요? 당신은 이 사순절에 무엇을 봉헌하시겠습니까?

M^cGREGOR

☆삼성물산☆

맥그리거

전 주 특 약 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울리안나)

☎ ④ 4 4 5 1 종년제과 분점양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이 리 경 문 학 원

◎이리역앞(서울 신막은행4층) ☎ 5943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레비 대입검정·고입검정)

고입 종합반 대입 종합반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사순절 메시지□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가진 것을 나누려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교 황 바 오 로 6 세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와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가까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형제적 우의를 두터이 하는 사순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감명깊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사도행전 2,44). 이러한 생활방식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사도행전 4,32)이 된 신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이 생기에 차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될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 안에서 각자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생활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만물은 예외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원리를 이미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이 자연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며, 사랑의 동기는 이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눔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비롭게 주신 유산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가운데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로부터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공동 노력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웃 사랑을 표현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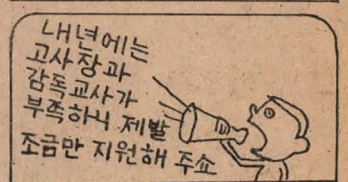
주는 것, 받는 것 모두를 우리는 형제적 나눔이라고 하나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형제적 우의(友誼)의 표현으로 이 나눔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합시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성 바오로 사도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깁시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공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보속의 정신으로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고린토 전서 16, 2).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가진 것을 나누려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78년 재의 수요일에

요십이 (237) 김병오



☆ 교우님들의 협조를... ☆

문 의 상 실

문 정 실(세시리아)

☎ 군산 6224

군산시 축성동 영동 파출소 옆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원아모집 □

성 모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 2월 1일-2월 28일

주 소 : 전주 중앙성당 내

전 화 : ☎ 6669, ☎ 387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5789)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남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3·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순절입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 ① 교황 사순절 메시지 발표, 각 본당과 공소에서는 이를 낭독하고 그 뜻을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 ②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리는 돼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 2. 인성회 세미나(12일<일> 11-15시, 가톨릭센터) 인성회 임원 및 봉사분과위원장 연석
- 3. 혼인문제 상담일(13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 4.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오늘 오전 10시-오후 2시, 가톨릭센터)
※ 각 본당 학생회장 및 지구장은 1년간 사업보고서 3부씩 지참 바람(회비 500원)
- 5. 가톨릭 농민회 총회(23일-24일, 가톨릭 센터)

(고산)

전화 19번

주임 신부 문규협
사도 회장 장결암

- 1. 교무금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행위, 형제는 기쁘고 솔직하게, 그리고 제때에 하시고 계십니까?
- 2. 사랑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매주<목> 저녁 7시 반
※ 7시부터 고백성사, 한주간에 주일외에 적어도 이 날 만이라도 같이 사랑을 나누시다(성서 지참바람)
- 3. 돼지는 잘 기르고 계십니까?
- 4. 주일학교 교사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5. 공소방문: 순회미사-수청(저녁 7시반, 고백성사7시)
판공-백석(13일 오전 9시 반 도착)
안식(14일 오후 5시 도착)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서영복
보좌 신부 오진영
보좌 신부 이복석
사도 회장 박성배

- 1. 예비자 교리: 12일부터 시작
 - 2. 푸리아 월례회: 12일 오후 2시, 강당
 - 3. 상지회 월례회: 14일 오후 6시, 김형택 형제대
 - 4. 성모유치원 졸업식: 14일 오전 10시
 - 5. 가정방문: 교사동-15.16일
 - 6. 돼지 저금통이 남아 있습니다
- 감사헌금: 50,000원(익명)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박
사도 회장 오종용

- 1. 본당 수녀님들 환영!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님(공식미사 후 다과회)
- 2. 신용조합 정기총회: 수녀님들 위한 다과회 후
- 3. 신우회 월례회: 저녁미사 후
- 4. 청년 성가대 조직: 다음주 공식 미사후 뜻있는 남녀 청년들은 꼭 나오세요.

(삼례)

전화 18번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최병윤

- 1.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냅니다.
- 2. 오늘 주일학교 아동 가정방문, 각 구역장님과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 3.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여산)

전화 16번

주임 신부 김만석
사도 회장 김종화

- 1. 회장단 연수회: 17일 오전 10-오후 6시, 성당 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꼭 참석 바람.
(지참물-성경, 기도서, 성가집, 필기 도구)
미사는 오후 5시 반에 있음
- 2. 부인회: 공식미사 후
- 3. 병자성사 및 영성체: 14일, 사무실에 접수 바람
- 4. 차주 전례: 독서 ① 신미자 ② 이수영 신자들의 기도-김봉만

(주현동)

전화 3993번

주임 신부 안용기
사도 회장 박영근

- 1. 회장단 연수회: 17일 오전 10-오후 6시, 성당 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꼭 참석 바람.
(지참물-성경, 기도서, 성가집, 필기 도구)
미사는 오후 5시 반에 있음
- 2. 부인회: 공식미사 후
- 3. 병자성사 및 영성체: 14일, 사무실에 접수 바람
- 4. 차주 전례: 독서 ① 신미자 ② 이수영 신자들의 기도-김봉만

(창인동)

전화 2325번

주임 신부 김홍태
보좌 신부 오정은
사도 회장 김은홍

- 1. 애령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2. 차주 전례: 독서-김용만, 기도-이길연, 미사안내-노선순, 이동근, 박인수, 신혜숙
- 3. 돼지 저금통, 신자수첩 미수령세에 수령바람
- 4. 구역 형제회: 모현 1구(13), 2구(14), 2마남(15), 마북(16), 약촌 1, 2(17), 영동 1, 2(18)
- 5. 교무금 봉헌은 신자수첩 이용을..... 주일헌금 봉헌은 봉투로 품위있게
- 6. 제단체 감사준비 바람, 교구 확인지도 대비
(※ 일정-사업계획 참조)

(활동)

전화 30번

주임 신부 강덕창
사도 회장 이종호

- 1. 의자설치 기공
-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 3. 삼기공소 우물작업 하는 분들, 수고하시겠습니다
- 4. 교회에 봉헌은 1/10조 정식으로
- 5. 신용협동조합 새 조합원을 환영합니다.
- 6. 차주 전례: 독서 ① 김인식 ② 유메테사 봉헌-백남석 부부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 1. 아동 특별교리, 부모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쳤음. 남자 48명, 여자 61명, 계 109명
- 2. 미납된 봉헌금 및 신축헌금 조속히 완납합니다.
- 3. 사도회 고문님들: 엄기섭, 유훈석, 최낙범, 조준석, 김용환, 송영기, 소병을, 양석승, 임우순
- 4. 어머니 성가대장(정...박은혜, 부...임병순) 반주(정...김종태, 부...임우선)
- 5. 평신도 강론, 제경위원장님(1/10조 정선)
- 6. 뜻깊은 사순절이 되도록 서로 사랑을...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복자 부녀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성미애 정성음... (보속의 뜻으로)
- 3.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성호 형제대
- 4. 공동체 성가연습: 공식미사 전
- 5. 학생 특별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강부제님 빠짐없이 나와 배웁시다
- 6. 복자 신용조합 제3차 정기총회: 19일 오전 11시 반 복자성당 강당(전조합원 통장·인장지참, 기념품 증)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1. 선교주일, 10시 미사 후
- 2. 교리교사님을 수고하시겠습니다. 유민승, 김진숙, 최주원, 김성문, 김정자, 양윤선
- 3. 예비자 교리: 19일 10시 미사 후

(숲정미)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장우회: 오늘 저녁미사 후
- 2. 자모회: 10시미사 후
- 3. 성가정회: 매일<월> 오후 2시(미사)
- 4. 사순절 십자가의 길: <수·금> 저녁미사 후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유석

- 1. 장우회: 오늘 저녁미사 후
- 2. 자모회: 10시미사 후
- 3. 성가정회: 매일<월> 오후 2시(미사)
- 4. 사순절 십자가의 길: <수·금> 저녁미사 후